

韓稚振氏의 『人性의本質論』을읽고(三)

朴明茁

人間은 tool making animal이다 구타여 人性의 本質(根本的)을 찾는다면 이것 뿐일 것이다. 이것도 人間의 身體가 客觀的 條件에 다다라 그러케 構造가 된 까닭이며 이러케 構造된 人間이 存立코저 하는 盲目的 本能의 分化組織된 것이 理性이나 美性으로도 進化의 原動力은 人性의 內包가 아니라 人類史가 正確히 指示한 것과 가티 人間이 哺乳動物時代부터 社會生活을 한 그 까닭이라 한다. 오늘날 人間의 자랑인 文化現象은 社會란것을 分離하고는 理解할 수 업고 이 社會生活은 生産關係를 除外하고는 把握하지 못한다. 이들 人間의 文化現象은 生理學的으로 動物學的으로 或은 心理學的으로 分類하고 究明해보는 것은 決코 害롭지 안타. 그러나 社會生活이란 客觀的 物質的인 全 他律的 條件을 除外하고 人間本性 原動力論은 넘우나 空의 觀念的인 것이다.

◇-◇

다시 韓氏는 眞正한 要化는 意識的 持續이라 하고 環境을 變化식힐수 잇서도 人性은 變改치 못한다는 理論에 一面 肯定의 秋波을 던지는 것을 보면 唯心論的 惡疾에서 社會生活이 人間의 思想을 規定하고 社會生活은 物質的 生産關係가 決定하는 것이며 모든 것은 唯物辨證法的으로 進化過程을 밝는다는 것을 모르는지 니젓는지 人間은 宇宙의 出發點이고 歸點이라고 부르짖고 오늘날의 모든 社會運動도 環境을 變改할 수 잇다는 原則에 基因된 것이니, 그것은 곧 人間의 本性에 宇宙的 原理란 것이 內包되여 잇서서 外部에 揮發되는 自我實現이며 그것은 社會發生能力, 諸 精神能力뿐이라고 斷定하였다.

萬若에 韓氏의 말이 正當하다고 하면 都市人은 都市人的 이데오로기-를 가지는 것은 何故이며 同一한 人間으로 支配者의 立場에 잇슬 쎄는 支配者의 心理를가지고 彼支配者일적에는 彼支配者의 心理 例하면 抗爭으로 나오

는 것은 무엇이나? 이것으로 보아 假使人性에 內包 潛在된 宇宙的 眞理性이
있서 그러하다고 하자. 그것은 껍이나 不正確, 不分明한 것이니 말한 바와
가티 宇宙的 眞理는 何常□□□□□□改造코저하는 能力이라하면 우에 말한
生活的 條件에 따라 各異히 變化하는 現象은 무엇일가? 人間 內에 潛在한
宇宙性이란 것은 論者의 主觀的 概念뿐이고 客觀的 存在는 아니다.

◇-◇

韓氏의 今番 論文은 人性의變化를 肯定한 것은 正當하다. 그것을 日律的
能力, 卽 宇宙眞理의 潛在란 것은 不當하다. 그것이 걸핏하면 結果에 잇서
惡用될 수가 잇슬 뿐만 아니라 空想的 抽象論이고 反動 無分이 濃厚한 說辯
이 될 것을 두렵한다.

그 以上下性 害惡에 關한 他說의 紹介와 自說의 發表는 그다지 痼疾을 늦
기지 안는다. 妄言을 客怒하라. (글)